

## 나를 돌보기 위한 존엄한 결정(決定)

윤만수 교수

부산대병원 부산지역 암센터 소장



우주의 한 생명체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한여름의 피약벌이라는 대자연 앞에 작아지는 존재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의 탄생과정을 함께 했었고, 가족이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면서 “삶,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세기가 바뀌면서 출생률의 감소, 고령화, 그리고 “암(癌)”이라는 질병과 그로 인한 사망자수의 증가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회의 변화와 함께 의료현장도 변함에 따라, 점차 제 돌봄의 대상도 암환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2001년 국립암센터가 개원을 하였고, 2004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암관리의 거점기관으로 지역암센터를 지정하는 등 암정복을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동승해 나가던 저에게 작게나마 삶의 전환점이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라는 한정된 틀 안에 있던 저는 2009년 9월 부산지역암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암센터소장이라는 책무를 맡으면서 부산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보살펴야 하는 보다 큰 의무감을 가지게 되었고, 힘든 여정 속에 있는 암환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겠다

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들의 희망이 됨과 동시에 호스피스를 통해 말기암환자들의 마지막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면서 점차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일이 많아지고, 주위에 유명을 달리하는 지인들의 소식을 많이 전해 듣게 됩니다. 호스피스가 지금처럼 알려지지 못했을 때, 환자들은 마지막 남은 소중한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하기보다는 의료인들의 처방하나, 처치하나에 모든 희망을 걸며 죽음과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지금까지 지켜보오면서, 삶과 죽음을 분리하여 죽음에 대한 논의를 너무나 터부시해 온 사회적 관습 때문에 삶에 대한 긍정과 희망은 많지만, 죽음 앞에 서있는 인간의 모습은 두려움과 공포만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시인 마닐리우스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하고, 그 끝은 시작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같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시작과 끝은 하나라는 선지자의 명언이 아니었을까요? 생명연장이 의료계의 핵심 이슈인 현대사회의 이면에는 암, 치매, 고령 등 어떤 이유에서든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죽음을 실패로 여기며 죽음에 대한 논의를 회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명윤리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부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에 대

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진단 받고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하던 환자들이 더 이상의 암치료를 진행할 수 없을 때, 호스피스로 돌봄의 방향이 전환되기도, 좀 더 이른 시기에 호스피스의 접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료계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해야할 때 의사로부터 현 상태에 대해서 통보를 받게 되고,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보다는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품위를 지키며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치료만 받겠다는 서약서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며, 환자는 호스피스로 의뢰된 후에야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권(決定權)을 가지고 선택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그나마 임종을 몇 개월 앞둔 시점이라도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밑거름은 호스피스 현장에서 노력해온 수많은 호스피스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병동에 와서야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부터 미리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고자 더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2년 1월 보건복지부의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다양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적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국가 생명윤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첫 활동 중 하나가 사전의료의향서(advanced Medical Directives)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을 보면 우리사회가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는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을 통한 정책적 이슈화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대상으로는 많은 죽음준비 교육들이 있지만, 더욱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교육이 개설되어야 하며, 이런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인력, 장비, 시설 등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암센터 및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를 알리는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저부터 한걸음 더 앞장서서 노력할 것입니다.

